

인도는 과연 환상·신비의 나라?

우리는 흔히 인도를 신비한 나라, 미지의 나라로 부르고 또 그렇게 여긴다. 거지와 수행자가 함께 사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인도. 따라서 인도는 현대 문명에 찢든 모든 이들에게 위안을 줄 환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만 있으면 어떤 정보도 섭렵이 가능하고, 심지어 우주여행까지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지만 인도는 한없이 신비한 그 어떤 곳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과연 인도는 신비와 환상으로 가득한 곳인가? 10년 가까운 세월을 인도델리대학에서 인도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요즘도 종종 인도를 들락거린다는 이옥순 박사(송실대 강사)는 단언한다. "인도 또한 그저 사람이 사는 곳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인도는 없다는 것이다.

그가 펴낸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은 '신비'라는 겉포장으로 인해 잘못 알려진 인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비판적 정보와 균형 잡힌 견해를 제시한다.

저자는 왜곡된 인도 이미지의 간파와 유포 혐의를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서양에 의해 날조된 동양에 대해 쓴 '오리엔탈리즘'의 저자,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이자 세계적인 문화평론가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읽어낸다. 사이트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 간의 인식론적 구분을 창조하고 확인하는데 기여한, 서양의 동양에 대한 연구와 서양에 의해 재현되고 지지된 어떤 이념적 관점"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서양이 상상하고 날조해낸 동양의 이미지, '신비한 인도'의 이미지가 오리엔탈리즘인 것이다. 이에 더해 저자는 영국이 유포한 오리엔탈리즘을 복제하여 재생산하고 있는 오

늘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복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지칭하고, 우리가 보는 인도는 이중의 오리엔탈리즘, 곧 서양이 구성한 동양이 아닌 '동양이 구성한 동양'이라는 중층적 구조에 대해서도 실낱하게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영국과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소설과 여행기, 신문과 잡지에 실린 글 등 문자화된 수단인 텍스트를 분석하여 상상력의 렌즈와 보는 자의 '전지전능한' 시선으로 박제(형성)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복제되고 무의식적으로 수용(재생산)되는 이미지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발전했는지 추적한다. 영국인 존과 결혼하는 성자가 등장하

는 강석경씨의 소설 <세상의 별은 다 라사에 뜬다>를 분석한 저자는 "강석경이 그려낸 인도에는 인도인이 없고 그저 야만인만 있다"며 "인도는 한국 여성이 '클레오파트라'가 되어 서양의 '위대한 개츠비'를 만나는데 무대만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송기원씨의 소설 <안으로의 여행>에서 그려진 인도 역시 "정복하고 지배받아 마땅한, 야만적 인종이 사는 곳이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닌" 것으로 그려진다. 특히 "인도 토착민 특유의 새까맣고 비쩍 마른 얼굴들" "거무맹맹한 피부는 그가 토착민 출신임을 드러내고" 등 송씨의 표현에서 저자는 제국주의가 활약하던 시대 <설득

홀츠 시리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차별적 시선을 읽어낸다. 저자는 "소설 속 주인공들은 가난한 원시인을 만나고 후진 사회를 누비면서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비교우위의 행복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도 기행을 마친다"고 비판한다.

또한 인도 열풍의 진원지라 할만한 류시화 씨의 여행기는 인도를 이국적이고 신비한 대상으로 타자화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에서 류씨가 "다 명상이 같고 철학자 같다"고 한 인도의 하층민들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면서, 정말 가난해도 행복한 것인지 의문을 던진다. 류씨는 남의 것을 훔친 뒤 "이건 내가 잠시 갖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인도인의 뻔뻔스러운 모습에서 물질에 초월한 인도의 정신을 읽어낸다. 이를 저자는 10억 인구의 역동적 인도는 사라지고 과거 속에 박제된 '정신주의의 모국' 인도만이 남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이 뿐만 아니다. 대형 열차사고나 종교간의 충돌 등 신문 잡지의 보도 또한 인도를 사고에 무방비인 후진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저자는 '신비한 인도'를 말하면서 동양의 비합리성과 빈곤, 무질서 등을 '신비한 동양'으로 암시한 제국주의 시선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국주의와 정치적 연관관계가 없으면서도 식민시대 영국의 시선을 비판없이 그대로 차용하여 우리보다 열등한 나라로 인도를 바라보는 우리 또한 대영제국의 공범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왜곡된 과거·현재 균형 잡힌 견해 제시 "신비한 동양" 제국주의적 시각 반성해야"



<인도 또한 사람이 사는 곳일 뿐이다. 신비와 환상으로 가득한 그런 인도는 없다. 사진은 인도 우타 프라데시주 뽕뽕뽕 마을 광장에 모인 인도인들.>



<흰눈이 내려앉은 월정사 전경. 오대산 만월봉 아래 자리잡은 월정사는 자장율사가 창건한 오대산 신앙의 중심지다.>

마음 열려면 산사 찾으세요

'산사'

이형권 지음
고래실 / 1만 8천원

바람을 짊어 맨 수행자는 아니더라도 한번쯤 자신을 찾아 떠나고 싶을 때, 세파에 시달린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제공하고 싶을 때 우리는 산사를 찾는다. 휴가 때면 많은 사람들이 산사의 수련회를 찾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옛 모습을 원형대로 간직한 때묻지 않은 개암사에서는 옛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고, 조선 4대 사찰로 꼽힐 만큼 거찰이었던 건봉사의 오늘 모습은 향로봉의 철쭉선과 돌솥대, 십바라밀 석주 등을 통해 전하기도 한다. 또 해남 미황사는 땅끝에 핀 한말기 야생화 같은 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부석사는 소백산맥이 조화미를 연출하여 절 마당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이 모두 부석사의 정원이라고도 한다.

15년째 전국 사찰을 누비며 문화유적 답사에 발품을 팔아온 저자는 이 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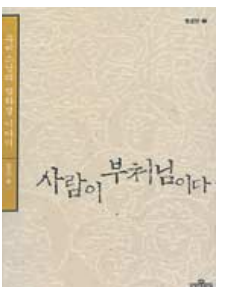
내 집처럼 편안한 절의 느낌 담아

시인 이형권씨가 펴낸 <산사>는 엄마 품처럼 포근하고, 내 집처럼 편안한 우리 사찰의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마음을 씻고, 마음을 여는 곳"이라는 부제에서 풍기는 느낌처럼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저자의 세심한 배려와 정성스런 마음 솜씨에 저절로 마음이 넓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서 어제의 모습에서 오늘을, 오늘의 모습에서 내일을 읽어내며 마음 깊이 느끼고, 배우고, 익힌 흔적을 노래한다. 산사의 사계를 담은 사진들도 저자가 직접 찍은 것이다.

새해를 맞아 우리 산천의 산사들을 찾아보리라 마음먹은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은자 기자

알기쉽게 풀어 쓴 법화경 이야기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스님 지음
불광출판부 / 5천원

<사람이 부처님이다>는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이 펴낸 법화경 이야기다. 무비스님은 법화경의 '사람이 부처님이다(佛思想)'라는 가르침을 불법에 귀의하여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당신이 깨달은 결론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법화경의 모든 것을 무비스님이 현대적 언어로 알기 쉽게 설한 강의를 내지는 공부책이라 할만하다.

온갖 모습과 아픔, 결점으로 얼룩져 있는 못한 인간 그대로가 참 부처님이라는 충격적인 가르침이 법화경에 담겨있다. 부처님을 살해하여 불교교단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제바달다가 부처님이요, 스승이라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법문을 설할 당시 5천명의 불제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전무후무한 사건이 오늘까지 전해질 정도로 법화경은 불교 최상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삶'이기에 사람됨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한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고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것이 무비스님이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는 핵심이다.

인물·학통·주제별 불학사 기술



'한국불학사'
(신라·고려시대 각 1권)
고영섭 지음
연기사 / 각권 1만 2천원

'인물' '개념' '학통'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불학을 살핀 <한국불학사>가 나왔다. 신라시대편과 고려시대편 각 1권으로 간행된 이 책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인 고영섭 박사가 펴냈다. 지난 1999년 펴냈던 <한국불학사>(신라·고려시대편)를 분석하고, 내용을 확충한 것이다.

신라시대 편은 문아·원효·의상을 중심으로 살펴나가고, 고려시대 편은 균여·지눌·일연을 중심으로 추적해 간다. '개념'의 측면은 각 인물들의 사유체계의 중심개념들을 살피고, 인도와 중국 불교 이래의 교학과 종학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불학으로 통섭해 간 한국불교의 주요 인물과 사상을 중심으로 '학통'을 논구해 간다. '주제'의 측면은 해당시대의 핵심적 사상의

쟁점 내지 학문적 화두를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와 관련지어 해석의 지평을 넓혀나간다. 즉 한국불교의 무늬와 살결, 신라하대의 선문화 전개와 발전, 고려신개편 조당집성자 연구, <삼국유사>의 연기사관, 고려 불교인들의 현실 참여 등 당대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나간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시이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시야 문
2	무심	경허 스님	고요아 집
3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 금강경	우봉 스님	효림
4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5	이뉘꼬	성철 스님	김영사
6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이화	역사비평사
7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영사
8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9	왕눈이스님	정수일	운주사
10	화엄경	법정 스님	동쪽나라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02)737-0695 / 팩스: 02)737-0696